

3. 일본 시장 동향

□ 일본 생산동향

<2011년 백합 주산지별 생산현황>

구분	재배 면적 (a)	출하량 (천본)	전년 대비	
			면적(%)	출하량(%)
전국	83,300	155,000	97	98
홋카이도	7,340	7,220	95	103
이와테	1,890	2,600	99	81
후쿠시마	1,740	3,320	64	70
토치	1,320	3,250	106	93
사이타마	7,940	28,200	105	105
치바	3,090	8,010	99	94
니가타	16,000	16,600	101	102
나가노	2,250	3,380	97	93
도쿠시마	1,500	2,530	103	99
코우치	11,500	19,800	94	99
후쿠오카	3,180	7,190	98	96
쿠마모토	2,380	5,520	102	99
미야자키	3,710	7,020	119	119
가고시마	4,090	9,760	82	85

출처: 일본농림수산성(2011)

○ 2011년 백합 주산지는 재배면적으로는 니가타(19.2%), 코우치(13.8%), 사이타마(9.5%), 홋카이도(8.8%) 순이며, 출하량으로는 사이타마(18.1%), 코우치(12.7%), 니가타(10.7%), 가고시마(6.2%) 순을 나타내고 있음

○ 백합의 재배면적은 83,300a로 전년에 비해 3% 감소를 나타냈으며, 출하량도 155,000,000본으로 전년에 비해 2% 감소

<백합의 재배작형 및 특징>

구분	작형	지역	정식기	수확기	주요품종	비고
시설재배	夏秋 절화재배	난지~ 온난지	7월상순~ 12월상순	10월상순~ 6월상순	조지아, 히노모토	鉄砲백합
	春夏 절화재배	한냉지	6월중순~ 10월하순	5월상순~ 10월상순	몬트롤, 코네티컷킹	스카시백합, 아스아틱 하이브리드
	주년 재배	난지~ 한냉지	주 년	주 년	카사블랑카, 르네브	구근저온저리, 화란산 수입 저장구근 이용
노 지	夏秋 절화재배	난지~ 한냉지	4월상순~ 5월상순	7월상순~ 10월하순	津山, 銀河, 雷山の 각 계통	新鉄砲 백합
	억제 재배	난지~ 한냉지	10월상순~ 7월중순	6월상순~ 10월하순	코네티컷킹, 카사블랑카	저장구근 이용

출처: KATI(2013. 2. 4)

○주요 재배품종

- 백합의 종류를 보면, 백합은 약 96개의 종(種)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96개종에는 원종(자생종)을 의미하여 이에 교배한 것이 원예종으로 구분됨. 이 원예종에는 오리엔탈계, 아시아틱(스카시)계, 철포백합, LA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철포백합계인 신철포백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리엔탈 계통도 전체적으로 증가경향임. 스카시백합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LA계는 약간의 증가경향임

□ 일본 수입동향

○ HS Code: 060315, Lilies (Lilium Spp.), Fresh Cut And Fresh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일본 백합 수입 동향>

단위: 달러, kg

순위	Partner Country	2012	
		USD	Quantity
	World	9,219,730	2,727,479
1	Korea South	8,427,538	2,645,998
2	Israel	395,077	40,458
3	Taiwan	151,533	17,353
4	South Africa	70,790	6,267
5	Colombia	44,213	3,967
6	Ecuador	33,530	3,058
7	Vietnam	32,688	3,602
8	China	25,477	4,597
9	New Zealand	19,326	860
10	Netherlands	14,951	909

출처: Global Trade Atlas

- 일본의 백합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이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백합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으로 수입액 8,427,538 달러, 2,645,998 kg을 기록함
- 2012년 일본의 백합 수입액은 9,219,730 달러이며, 수입량은 2,727,479 kg을 기록

□ 일본시장 내 한국 백합

○ 일본은 전체 백합 수요량의 3~4%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산 중 한국산 백합이 일본시장의 94%를 점유 중

- 한국산 백합은 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05년 이후부터 엔화약세 등 수출환경 악화로 주춤하였으나 07년 이후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

- 한국산 다음으로 백합에 대한 일본의 주 수입국가는 중국으로서 중국산은 일본 수입·가공업체가 중국 현지농장(운남성)에 투자하여 저가 대량수입하고 있어 증가 추세였으나 06년 이후 다소 감소추세

- 일본에 수입된 한국산 백합 월별 수량 및 신고금액 (2010년)

2010년	일본에 수입신고된 한국산 백합 수량 및 금액			
	신고건수	신고수량	신고금액(엔)	1본당단가(엔)
1월	70	621,345	42,980,000	69.1'
2월	57	363,270	25,913,000	71.3
3월	60	388,910	31,831,000	81.8
4월	30	139,360	10,850,000	77.8
5월	64	424,359	34,562,000	81.4
6월	98	814,425	50,270,000	61.7
7월	85	795,571	48,740,000	61.2
8월	119	2,552,744	152,830,000	59.8'
9월	101	2,191,460	145,204,000	66.2
10월	67	849,946	73,610,000	86.6'
11월	96	963,916	83,247,000	86.3
12월	182	2,263,722	183,489,000	81.0
계		12,369,028	883,526,000	71.4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10)

- 일본의 전국공항 및 부두를 통해 수입 신고된 한국산 백합의 수입신고건수 (B/L 기준) 와 해당 신고서류상의 신고수량, 신고금액 (단위: 1본)에 대한 통계자료로 8, 9, 12월이 일본의 백합에 대한 수입 성수기 이며 2, 3, 4월이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시기임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8, 9, 12월의 물량이 많은 것은 일본의 백합수요 성수기인 8월 오봉절, 9월 추분절, 12월 연말연시 수요시기 이기에 수요가 많고 단가가 높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하여 많이 재배하고 출하하는 것이라는 통계이며 실제 정상거래 단가와는 차이가 있음